어째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성신을 그렇게 믿지 못하십니까!

☞ 21면에서 계속

'아하, 너와 나는 둘이 아니구나. 너와 나는 한 뿌리고, 한 뿌린데 무엇을 빼앗고 무엇을 빼앗길 것인가.' 그때, 그건 분별심인지 하나의 진짜 깨친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따지고 보면 전부 잔소리입니다. 하하하. 지금 이러니저러니 하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그 말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질문자1(남) 접니다.

큰스님 하하하. 전데, 그 저 하나만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보기도 하고 저거를 보기도 하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저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질문자1(남) 아직 듣는 그 마음자리를 깨치지 못해 가지고 지금도 방황하는 중인데요.

큰스님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조차도 거기 놓으십시오. 안 되는 것도 놓고 방황한다는 것도 놓고 또는 모른다는 것도 놓고, 모든 거를 그냥 놓으세요. 지금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이것저것 끌어냅니까? 거기다가 그냥 '너만이 나를 물리가 터지게 해 줄 수 있어.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 작년에도 어저께도 이끌어 가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끌어 가겠지.' 그러고 다 거기다 놔요. 거기다 맡겨 놔요.

질문자2(남) 저는 1년여 전부터 저희 집사람의 도움으로 한마음선원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형제회에도 가입을 해서 선배 법우 여러 분과 생활의 방식도 공부하고 또 불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하면서 먼저 배운 분들의 공부를 훔쳐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끼리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역시 스승님께 여쭈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모아서 제가 대표해서 질문을 올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처님 가르치심의 핵심이 되는 인연법을 말할 때 으레 십이연기가 거론되고 합니다. 무명(無明)이 있으니 행(行)이 있고, 행이 있으니 식(識)이 있고, 그와 같이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나가다가,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거꾸로 말한다면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그렇게 해서 생로병사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줄여 보면 무명이 있기에 생로병사가 있고 무명이 없으면 생로병사가 없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명코 무명을 여의신 분이었는데 어째서 늙고 죽음이 있었는지요? 큰스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부처님께서 그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두 못 알아들어서 대답을 못 들은 거죠.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래 빛깔과 음파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텔레비전이 나오듯 나오는 것이지, 이 텔레비전 자체가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보실 줄 아는 사람은 생로병사가 무(無)라고 할 거고, 보실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몸뚱이가 죽으니까 죽었다고 하고 몸뚱이가 살아야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가끔 하죠. 두 친구가 하나는 스님이 되고 하나는 속인인데, 속인인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스님 된 친구를 불렀답니다. 그랬는데 천도를 잘 좀 해 달라고 떡 불렀는데 천도는 안 해 주고 한다는 말이 "어휴, 온 것이 없다면 갈 곳도 없을 것을…." 아, 이렇게 한마디 하고 쓱 가버리거든요. 온 것이 없다면 갈 곳도 없을 것을….

> 이거 틀림없이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딱 뒤집어 놓고 바로 세울 수 있는
> 그런 용기와 패기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지어 가지고 그냥 죽었느니 살았느니 애를 쓰고 야단들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옷이 헐고 헤졌고 바래고 그랬으면, 또 그 시대에 맞지 않고 그러면 벗어 놓고 새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건데 죽었다 살았다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도리만 알면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지요. 그냥 여여함이죠.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뭐, 어느 책에서 보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같은 질문을 받으시고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기에 제 자신도 이것은 여쭤서 알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큰스님 부처님이 대답을 하셨다면 안 하는 게 있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또 틀린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신 게 하신 거지요.

질문자2(남) 부처님께서는 무정물에도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큰스님 불성을 지금도 얘기했지만 아, "온 게 없으면 갈 곳도 없을 것을…." 한 뜻이 바로 거기에도 해당이 되네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텔레비전 상자가 자기냐, 텔레비전 자체가 자기냐? 저 방송국에서 이렇게 통신을 줘야만이 사람 노릇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텔레비전 상자가 자기라고 하니까 이것이 망가졌으면 방송국이 다 망가졌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부서졌을 뿐이지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어요.

질문자2(남) 그렇다면 제가 언젠가는 죽어서 송장이 될 건데, 그러면 살았다는 거하고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저와 송장과는 어떤….

큰스님 본래 산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서 움죽거리는 이 몸뚱이가 바로 자성신이 있다는 거니까 둘이 아닌 자기 자성신을 믿으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깐 형체가 꼭 자기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과 마음은 이 육체를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셨죠. 대답을 안 하신 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살아 있어도 이 의식만 딱 끊어지면 그냥 송장이죠.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산 송장, 죽은 송장 그것뿐이에요. 허허허. 산 송장, 죽은 송장!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현상계에서 보면 지구 속에 화산이 일어나는 것은 지구 속에서 나오는 작용이고, 지구 바깥에서 바다에 해일도 일고 홍수도 생기고 전쟁도 일어나는 것은 지구의 대기권이나 인간들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이라 볼 때, 지구라는 몸체가 처음 형성될 때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뭉쳐졌다면, 파괴나 난리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지구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고 정화하기 위한 작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몸체도 인연에 의한 업식으로 뭉쳐진 것이라면 우리가 화산과 홍수가 작용을 하듯이 나를 제도하고 정화를 하기 위한 주인공의 작용이라 생각하니 그대로 넉넉한 마음이 듭니다. 지구가 작용을 하였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듯이, 나한테서 나온 것을 제자리에 도로 놓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큰스님 법문 중에 "병이라고 이름 짓지 마라. 병이 병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과 뜻이 같은지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도 공부가 되어 가는 증명인지요?

큰스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역력하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패기도 생기고 잔잔한 물과 같이 아주 편안하기도 하면서 편안하고 잔잔한 그 속에서 솟아 나오는 그 심력은 정말 누구도 그걸 당해 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가신다면은 잘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계(戒), 정(定), 혜(慧)를 이렇게 정해 놨는데 계율도 모든 게 이 한마음 속에 들어 있고 지혜도 한마음 속에 들어 있으니 계, 혜, 정이죠. 계와 혜가 정 속에 들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정 속에 듦으로써 지혜가 풍부해서 해탈이 생기고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우리, 도반으로서 열심히 해 보십시다. 또 질문할 사람 없어요?

질문자3(여) 스님, 저는 질문하는 것보다 스님께 고맙다는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이종 언니로부터 『무(無)』와 『도(道)』 책을 읽고 찾지는 못해도 마음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찾자니 습을 제거해야 되겠고, 습을 제거하자니 나 자신을 버려야 되겠습디다. 그런데 그게 참 잘 안되더라고요. 이번 1월 3일 날 스님을 처음 뵈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추석이 돼서 갑자기 손이 아파 왔습니다. 손가락이 아파 왔는데 이거를 주인공한테 한번 맡겨 보았지요, 첫 번에. 맡겨 보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들어요. 결국 골수암까지 갔습니다. 골수암까지 가서 치료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뼈 검사를 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때부터 제가 '아니다. 손가락을 끊어 내는 한이 있더라도 두 번 다시 병원에는 안 가고 내 주인공한테 맡기겠다.' 그러면서 한 보름을 견뎌 봤어요. 그러다가 그때 큰스님께서 KBS 홀에, 부산에 오셨습니다. 그때 부산 지원에서 스님을 뵈었지요. 그때는 마음이 완전히 놓입디다. '이제는 완전히 손이 낫겠구나.' 그러고 스님 뵙는 순간에 몸에 전기가, 전류가 흐름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이 약간 곪더라고요. 그래서 고름을 내 손으로 직접 짜냈습니다. 짜내고 한 며칠 있으니까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 지금 사진 안 찍어 보고 검사 안 한다고 하지마는 저는 지금 믿습니다. 지금 아물었어요.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 믿는 마음의 능력이란 건, 여러분이 못났든 잘났든 자기 마음이라는 건 얼마나 이 태산을 지고도 남음이 있고 이 우주를 뚫을 수도 있고, 탱크를 부술 수도 있는, 허, 이런 도리인지 모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도리입니다. 그런 건데 믿지들을 못해 가지고선 그렇게 허우적허우적거리니 마치 이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 단단히 믿음을 가져서 세세생생에 이 중세계의 통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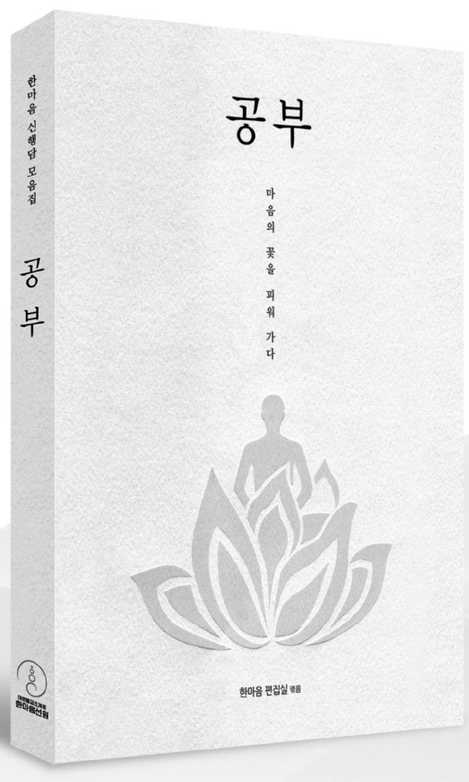
아이,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시라고요. 없습니까? 하하하. 여러분, 이 질문은 질문대로 해야겠지만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믿는다, 내가 이거 틀림없이 여기서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주먹을 쥐어 보이시며)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딱 뒤집어 놓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패기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다리 절름발이고요, 한쪽 눈 장님이고요, 한쪽 귀 귀머거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이저 광선이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마는 이 마음의 심력만은 못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 50%밖엔 안 되니깐요. 이 부처님께서는 자기 아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똥 누고 밑을 씻어 줘 가면서 그렇게 높은 게 없이 그저, 하다못해 개가 염원을 해도 개로 화(化)해서 병을 고쳐 주시고 또 무명을 벗겨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떠한 개체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전체의 한 덩어리의 한 불기둥을 표현해서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저 이 '도리천' 하면 천체 한 기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도반으로서 내가 더 높으니 네가 더 얕으니 이런 거를 떠나서, 한 기둥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심력을 똑바로 길러서 애고라든가 병고라든가, 어떠한 업식이라도 다 그냥 태워 버립시다.

※위 법문은 92년 12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